

보도자료



보도분류	브리핑() 보도자료 제공(✓)
보도일시	2023. 5. 10(수)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 성 과	스마트시티과
담 당	과장 심순옥, 스마트인프라팀장 김원일, 담당 송대성(032-453-7473)

AI CCTV로 실종자 찾고 도로상태도 관리...스마트시티 더욱 고도화된다

인천경제청, 내년 준공 목표 IFEZ 스마트시티 기반서비스 1단계 구축 ‘착착’

얼굴·객체 인식 영상 관제 등 시민·기업 체감 17개 서비스 제공에 박차

2·3단계 통해 서비스 더욱 촘촘히... “4차산업혁명 기반 스마트시티 서비스 구현 최선”

-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송도국제도시에 거주하며 초등학교 4학년과 2학년을 자녀로 둔 학부모 A씨는 아이들이 하교 시간이 지났는데도 귀가하지 않고 밤늦게까지도 연락이 되지 않자 속이 시꺼멓게 타들어갔다. 혹시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노심초사하며 마음을 졸였다.
- #고민 끝에 A씨는 IFEZ 스마트시티운영센터에서 ‘얼굴 인식 영상 관제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기억을 떠올려 다음 날 센터에 급히 연락하니 “아이들의 사진을 갖고 방문하면 찾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 서비스를 통해 빠른 시간 내에 아이들의 동선과 현재 위치를 확인한 뒤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는 안도하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 이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내년 말 구축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인 ‘IFEZ 스마트시티 기반 서비스 1단계 구축 사업’과 관련해 시민들에게 제공될 예정인 서비스의 일부를 가상으로 꾸민 것이다.

- 얼굴 인식 영상 관제 서비스는 IFEZ 송도·영종·청라국제도시의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스마트횡단보도가 설치된 총 16곳의 초등학교 앞을 대상으로 얼굴 인식이 가능한 ‘AI(인공지능) CCTV’를 설치, 어린이 뿐만아니라 치매 노인 실종 사고 발생 시 안전사고 예방 및 실종자 추적이 가능하다. 현재는 IFEZ 스마트시티운영센터의 관제 요원이 CCTV를 통해 일일이 아이의 동선을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최첨단 스마트시티 기반 서비스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다.
- 인천경제청은 ‘2030 IFEZ 스마트시티 추진 전략’ 및 스마트시티 기반 서비스 1단계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내년까지 총 사업비 102억원을 투입, 스마트시티 기반 서비스 1단계 구축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 이는 IFEZ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더욱 고도화하기 위해 ‘글로벌 미래 도시, 스마트 혁신 허브 IFEZ’를 비전으로 오는 2030년까지 도시공간 혁신, 시민 참여, 기업 육성, 데이터 허브에 기반을 두고 추진 중인 2030 IFEZ 스마트시티 추진 전략 가운데 1단계 사업이다.
- 1단계는 공공 주도의 기술 도입과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는 ‘공공기관 주도의 일방적 접근(Top Down)’ 방식에서 탈피,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한 서비스를 제공할겠다는 것이 취지다.
- 인천경제청은 이번 1단계 사업을 통해 스마트한 도시 모델을 디자인하고 고도화된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구축·제공할 계획이다.
- 중장기적으로는 1단계 사업을 보완하거나 서비스를 확대·고도화해 시민, 기업, 환경, 도시공간에 중점을 두고 단계별로 설계·구축할 예정이다. 다시 말해 1단계를 더욱 촘촘하게 짜고 보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IFEZ 스마트시티 기반서비스 단계별 추진계획□

단계	1단계 단기('23 ~ '24)	2단계 중기('25 ~ '26)	3단계 장기('27 ~ '30)
추진목표	□ IFEZ 스마트시티 기반서비스 기반 구축 및 서비스 제공	□ IFEZ 스마트시티 기반서비스 확산·고도화·데이터활용·리빙랩 운영	□ IFEZ 스마트시티 기반 서비스 구축 완성 및 지속가능한 데이터기반도시 구현
사업발주	□ 2023. 04.	□ 2025. 04.	□ 2027. 04.
대상	□ 1단계 주요서비스 · 객체인식, 얼굴인식 영상관계 · 민원서류 배송 로봇 · 스마트 쉼터, 스마트 폴 · 스마트 교차로 · 그린에너지충전 ·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 스타트업파크 오픈스튜디오 · 플랫폼 고도화	□ 2단계 주요서비스 · 객체인식, 얼굴인식 영상관계 사업확대 · 무인드론 시범운영 및 센터 연계 · AI기반 실시간도로위험 관제 ·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확대 · UAM시범사업(市정책반영) · 리빙랩 플랫폼 구축 · IFEZ데이터허브 구축	□ 3단계 주요서비스 · 객체인식, 얼굴인식 영상관계 사업확대 · 다목적 로봇 서비스 확대 및 고도화 · 무인드론 고도화 및 서비스 확대 · AI 실시간도로위험 관제 고도화 · IFEZ데이터허브 고도화 · 미래교통도시 구현

- 이번 IFEZ 스마트시티 기반 서비스 1단계 구축 사업은 시민안전, 시민편의, 모빌리티, 기업육성 등 4대 분야 총 17개 단위 서비스로 구성돼 있다.
- 객체 및 얼굴 인식 영상관제를 비롯해 △AI 기반 실시간 도로 위험 관제, △스마트폴, △스마트쉼터, △그린에너지 충전, △다목적 자율주행 로봇, △스마트교차로, △긴급차량 우선 신호, △대형차량 통행관리, △교통신호 정보 개방, △버스 우선신호, △사물인터넷(IoT) 플랫폼 고도화, △시설물 통합관리, △오픈 스튜디오 구축, △‘폼(Poom) 플랫폼 클라우드’ 개선, △폼(Poom) 플랫폼 사용자 확대 등이다.
- 대표적인 서비스를 살펴보면, 먼저 AI 기반 실시간 도로 위험 관제는 도로 관리 차량에 센서기반 단말기를 설치해 도로파임(포트홀), 균열, 시선 유도봉 불량 등 각종 도로 위험 정보를 수집·가공해 도로 상태를 관리하는 서비

스다. 또 스마트쉼터에는 냉난방기, 공기정화기, 스마트벤치, 버스정보, 공공 와이파이 등의 시설물이 설치돼 대중교통 이용자와 시민들에게 안전한 휴식처를 제공하게 된다.

- 또 긴급차량 우선신호와 관련해서는 소방서 인근 교차로 신호기를 제어, 신속한 현장출동이 가능한 시스템이 구현된다. 인천스타트업파크 내에는 입주 기업 등에게 기술·서비스 홍보가 가능한 공간인 오픈 스튜디오가 구축돼 기업 육성에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한다.
- 인천경제청은 입찰 공고와 제안서 평가 등을 거쳐 오는 8월쯤 업체를 선정하는 등 스마트시티 기반서비스 1단계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 인천경제청은 이번 스마트시티 기반 서비스 구축을 통해 AI, 자율주행,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로봇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반영, 미래지향적인 친환경 스마트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특히 IFEZ의 도시기반 시설을 더욱 지능화하고 고도화해 시민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미래도시, 최상의 정주여건과 경쟁력을 갖춘 살고 싶은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이번 스마트시티 기반 서비스 구축은 전 세계가 주목하고 벤치마킹을 원하는 IFEZ 스마트시티를 4차 산업혁명에 기반을 두고 더욱 고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단계별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 시민·기업들이 체감·참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